

## 아동의 생산과 소비

김 정 운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아동이나 아동기의 개념이 보편적이거나 자연적인 개념은 아니다. 단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개념일 따름이다. 아동기를 보편적으로 간주하는 심리학적 접근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애착이론의 '어머니의 민감성(maternal sensitivity)'에 관한 분석은 아동과 모성, 이 두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둘로 나누어져 있다. 앞부분에서는 한 아동양육 전문 월간지에 실린 아동-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이미지 분석과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 광고 등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자연적 본능으로 설명되는 모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어머니의 민감성'과 같은 심리학적 개념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소비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이 같은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뒷부분에서는 모성을 본능으로 전제하고 출발하는 애착이론의 사회, 문화적 생산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애착이론은 보편적 이론이 아니라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구체적인 사회적 요구를 통해 생성된 결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애착이론을 보편적 이론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육아나 탁아소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애착이론의 이론적 전제들은 여러 가지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 모성, 가족과 아동양육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들은 구체적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맥락이란 단지 진공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들어가면서

#### 아동개념과 심리학이론의 역사, 문화적 구성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아동개념은 두 가지의 암묵적 정의에 기초한다. 하나는 미래의 희망이며 다른 하나의 정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의는 실재하는

1) 본 논문은 명지대학교의 신입교수 연구정착금 지원사업에 따라 수행된 연구입니다.

아동과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다.

미래의 희망으로 존재하는 아동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이 사회적인 존재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희망인 그 아동이 실제로 미래로 가면 더 이상 아동이 아니다. 결국 아동은 현재에서는 미래의 존재로 밀려나고 미래에서는 과거의 존재에 불과한 사뭇 까다롭게 정의되는 그 어떤 것일 따름이다. 두 번째 정의인 티없이 맑고 깨끗한 존재로서의 아동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특수한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프랑스의 문화사학자인 아리에스(Aris, 1965)는 중세 예술품에 나타난 아동의 이미지분석과 문헌분석 등을 통해 중세에는 아동이란 개념자체가 생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세의 그림에 나타난 아동의 모습은 성인의 축소판으로 묘사되어 있어 오늘날의 부드럽고 귀여운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의 아동의 이미지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중세의 아동은 작은 성인이었을 따름이다.

이런 현상은 회화 등의 예술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아동만을 위한 의복의 형태는 17세기 이후에나 귀족이나 신흥 부르주아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이나 당시의 농노,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은 성인과 같은 옷을 입었다. 아동의 위한 별도의 의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한 별도의 구별된 생활도 없었다.

노동에서도 아동은 별도의 배려를 받지 못했다.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아동은 성인과 다름없이 노동을 했다. 아동에 대한 가혹한 노동착취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 것은 자본

주의 체제가 확립된 18세기 이후이다. 가내수공업 을 중심으로 하는 전근대적인 생산구조는 도제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아동은 가능한 한 빨리 도제로 들어가 전문적인 생산기술을 배우고 생산과정에 참여해야만 했다. 노동에 관한 한 아동과 성인의 차이는 숙련도의 차이였을 뿐 아동의 노동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의식은 없었다.

노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한 별도의 놀이도 없었다. 아동은 성인들과 함께 놀이를 즐겼고, 심지어는 성(性)에 관한 농담을 스스로 없이 주고받기도 했다. 결국 생물학적으로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은 존재했으나 그 아동에 관한 사회적 표상은 오늘날의 아동개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아동개념은 18세기 이후의 산업사회의 출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철학적으로는 근대적 합리성과 역사 진보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동은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성되는 개념이라 봐야할 것이다(김정운, 2000).

아동의 개념이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아동과 관련된 심리학이론, 특별히 발달심리학의 이론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심리학이론에 관한 논의는 그 이론에서 제기되는 내용이 경험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그 내용들이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이론자체의 타당성은 이론 내부의 논리적 정합성과 경험적 자료의 일치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발달심리학 이론의 존재 근거가 되는 아동의 개념자체가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라

면 발달심리학 이론 역시 역사,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를 간과한 채, 한 이론의 타당성을 문화라는 독립변인을 통해 검증하려는 아동발달에 관한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cross-cultural studies)'는 엄밀하게 보자면 동어 반복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sup>2)</sup> 비교문화연구의 이론적 전제들은 문화라는 독립변인과 실증적 자료인 종속변인의 관계를 통해 객관성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모든 이론은 그 이론의 구성과정 자체에 이미 문화, 역사적 요인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심리학 이론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어떠한 관련 속에서 구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여러 발달심리학 이론 중에서 어머니-아동간의 정서적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 이론이 여타의 다른 사회적 관계들, 즉 어머니, 여성, 가족과 같은 관계들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애착이론과 관계되어 주로 제기되는 '애착유형의 분포가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가'와 같은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문제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애착이론의 역사,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고찰인 것이다.

기존의 실험심리학적, 실증주의적 방법론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일상의 익숙한 것들에 대한 '낯설게 하기'(김정은 & 한성열, 1999)라는 문화심리학적 방법론

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동-어머니 관계에 대한 표상을 낯설게 함으로써 그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심리학적 접근은 기존의 심리학이론에 대한 반성적 공간을 가능케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서구 심리학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해지며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심리학 이론 구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최상진, 1997, 2000).

## 단수(單數)로서의 아동

### 육아전문 월간지의 사례분석

문화심리학적 방법론으로서의 '낯설게 하기'는 아주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분류방식에 따라 재배치하는 방법을 통해 그 숨겨진 성질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아동개념의 소비가 가장 두드러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동과 관계된 상품광고, 육아전문 잡지 등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 유아와 관련된 육아전문 월간지를 선택하여 그 잡지에 게재된 광고들의 문안과 이미지, 기사 내용 등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식을 통해 아동과 어머니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매커니즘이 심리학 이론의 구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낯설게 하기'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문화심리학

2)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론구성 of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성찰이 없는 실증주의적 학문체계로서의 비교문화심리학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관심의 변형일 따름이다(Kim, 1997).

3) 본 논문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성의 있는 심사에 감사드린다). 특히 본 논문이

은 페미니스트 심리학의 방법론을 차용한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이 지향하는 바는 '객관적' 지식을 밝혀내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객관성', 혹은 '과학성'의 이름으로 은폐되는 남성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밝히고자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Clough, 1994; Burman, 1994). 문화심리학 역시 '객관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서구중심적 세계관'의 해체와 다차원적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심리학 이론구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기존 심리학에서 주장되는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실증적이고 객관적 지식'과 관련된 문제는 1970년대에 독일사회학계의 '실증주의논쟁(Positivismusstreit)'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어졌다. 독일의 사회학자들 뿐만 아니라 심리학을 포함한 여타 사회과학분야의 학자들이 총동원된 이 토론에서 얻어진 결론은 사회과학에서 추구하는 과학적 지식의 본질은 자연과학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이 사건을 해석하는 개념적 틀이 당파적이며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과학적 사건자체의 객관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인간

의 경험세계가 자연과학과는 다른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좌파적 과학관에 반대하며 실증주의 진영에서 논쟁에 참여했던 포퍼(Popper)조차 과학적 지식이 추구하는 바는 경험적 '타당성(Validitaet)'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성이 아니라 '반증가능성(Falsifizierbarkeit)'이라고 주장한다. 즉 한 사실의 관찰은 이론에 근거할 때만 의미있는 사실로 인식되며, 이 사실을 관찰하는 목적은 이론의 객관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부정하려는 시도이며, 좋은 이론이란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어야만 한다. 헤겔 철학이나 마르크스주의적 과학관은 역사가 완결된 상태를 전제함으로써 이론의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기 때문에 사이비과학이라고 포퍼는 비판한다. 결국 실증주의적 진영이나 좌파진영에서 모두 동의한 것은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적 의미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본질과는 관계없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하이젠베르크(Heisenberg)와 같은 물리학자의 '불확정성 원리'와 같은 이론은 자연과학에서조차 '관찰의 주체가 생략된 객관성'의 주장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sup>4)</sup>

예를 들어 '안중근이 이토오 히로부미를 살해

'실증논문'인지 '개관 혹은 이론논문'인지 나누는 것부터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한 사례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논문을 '실증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논문'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적당한 구분인지 필자는 의심스럽다. 특히 페미니스트 심리학에서 제기하는 '과학적 지식', 혹은 '가치 중립적이며 객관적 지식'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논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은 필자가 이해하는 '학문성' 및 '과학적 글쓰기'에 관한 것으로 논문수정시 추가하였다.

4) 자연과학에서조차 의문시되는 '객관성'에 관한 논의가 심리학에서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이를 필자는 '사이비가 가지는 열등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어떤 사회나 종교에서든 사이비는 항상 그 분류보다 더 보수적이며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한다. 이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다.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실증주의 심리학'이 이미 시들어진 '객관성'의 신화를 고수하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적 모델을 통해 자신의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통계학적 정당성 이외에는 달리 자신의 존재이유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실증주의 심리학'의 사이비성은 통

했다'라는 사실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석하는 '독립투사의 의로운 사건' 혹은 '한 테러리스트의 정치적 살인사건'이라는 이론적 해석의 틀이 없다면 '안중근이 이토오 히로부미를 살해했다'라는 사건 자체는 아무도 관심 가질 수 없는, 하루에도 전세계에 걸쳐 수십만 건씩 일어나는 살인사건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건은 '객관성'의 판단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안중근의 행위가 중요해지는 것은 안중근이 '의사(義士)'인가 '테러리스트'인가라는 해석의 틀과 관련되어 있을 때 만이다.

최근에는 인간지식의 특징은 '담론적(discursive)'이라는 주장이 포스트모더니즘적 인식론과 관련하여 강조된다. 위의 예와 관련해서 보자면 '의로운 사건'과 '테러'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즉 대립되는 '이야기 방식(how to speak)'의 관계에서 안중근의 살인사건은 그 성격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성에 관한 논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생략된 객관성에 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담론적 맥락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는가, 즉 '수증가능성/동의가능성(Nachvollziehbarkeit)'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중근의 살인사건이 우

리에게 '의로운 사건'으로 해석되는 것은 100명중에 99명이 그렇다고 대답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다. 안중근의 역사적 사건은 누가 더 수증할 만한 해석을 내놓는가와 관련된 담론적 지식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학자와 일본 역사학자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대립할 때 어떤 해석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가와 같은 통계학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자연과학적 객관성에 대립하는 의미의 '수증가능성'은 사회과학의 글쓰기, 즉 심리학의 논문쓰기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APA에서 규정한 논문양식에 따라 '선행연구', '가설', '연구방법', '결과', '논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심리학 논문의 글쓰기 방식은 논문의 내용이나 필자의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통해 결과의 객관성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론적 천박함을 통계학적 방법론의 정교함으로 감추려는 시도는 통계학 방법론의 유행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새로운 통계학적 방법론에 대한 심리학자의 강박증은 통계학적 절차가 자신의 논문의 질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같은 심리학자라도 분야가 다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필자와 논문심사위원 이외에는

---

계학적 방법론이 빠진 심리학이론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주장되는 통계적 타당성이란 '조작적 정의'를 통한 개념의 수학적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개념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 통계학적 변인으로 전환시키고, 기껏해야 서열변인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율변인'의 성격을 부여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얻고자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비수학적인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샘플집단이 전체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학적 가정들이 동원되어야 하는가는 통계학 개론정도의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통계학적 엄밀함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래의 변화를 표본으로 추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심리학의 사이비 실증주의적 열등감과 공격성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정신분석학'을 대학의 심리학에서 몰아낸 일이다. 심리학자들이 별로 신뢰하지 못한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끄쟁되는 사이, 심리학이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분석학이론이 정신의학자들이나 문헌비평가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별로 읽는 이 없는 ‘학문적 마스터베이션’에 불과한 논문들이 양산되고 말았다.

‘수용가능성’과 관련된 글쓰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어야 하며, 논쟁적이어야 한다. 밀교(密敎)의 교리처럼 숨어서 몇 사람만 몰래 읽는 논문은 과학적 논문이 아니다. 개념을 복잡하게 하고 통계학적 도표로 겁을 주며 접근자체를 애초부터 차단하는 방식으로 과학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는 ‘낯설게 하기’는 ‘논쟁적’이며 ‘담론적’인 글쓰기 방식이 되어야 한다.<sup>5)</sup> ‘수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다 알아야 하며’, ‘담론적’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sup>6)</sup>

### 아동양육의 이미지 분석

한 육아전문 월간지(양팡enfant) 8월호<sup>7)</sup>에 나타난 아동과 어머니의 개념 및 이미지 분석을 위해 아동의 사진이나 이미지의 사용횟수를 살펴본다. 육아전문 잡지인 관계로 잡지의 거의 모든 쪽에 걸쳐 아동의 사진이나 이미지 컷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사진이 제시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 한 명만의 이미지, 아동 여러 명의 상호작용 이미지,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이미지, 아동과 아버지의 상호작용 이미지, 아동과 어머니/아버지의 이미지, 기타 등등. 우선 위의 유형들 중 중요한 이미지들의 사용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 아동 한 명만의 사진: 115회
- 아동들끼리의 상호작용의 사진: 21회
-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사진: 80회
- 아동과 아버지의 상호작용의 사진: 14회 (이중 9장의 사진은 아빠들의 별난 아이사랑이라는 특집기사의 사진이며, 실제 광고나 일반기사에서 사용된 사진은 5회)
- 아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상호작용, 즉 가족의 사진: 4회 (이중 2회는 부모유전에 관한 기사에서 사용된 경우이며, 실제 광고나 일반기사에서 나타난 경우는 2회)

주로 광고나 기사의 컷으로 사용된 사진들의 횟수는 아동의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업주의에 의해 굴절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지

5) 통계학적 방법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통계학적 방법론 역시 질적 연구방법론의 한 부분이다. 숫자라는 기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석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전제를 무시한 객관성의 주장은 허구이다(김정운&한성열, 1999 참조).

6) 이와 관련해서 표집의 숫자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표집의 숫자는 통계학적 타당성과 관련이 있을 뿐 논의의 사회적 타당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울러 ‘논문’의 글쓰기와 ‘단행본의 한 장과 같은’ 글쓰기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APA와 관련된 한국 심리학회와 정통성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심리학, 특히 한국의 심리학의 문제는 바로 이 엄숙한 ‘APA 흉내내는 통계학 논문쓰기’에 몰두한 나머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이다.

7) 이 월간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단지 동네 책방에 꽂혀있는 3권의 육아전문 월간지를 비교한 결과 광고의 종류나 내용이 거의 동일했고, 세 권의 책이 모두 비슷한 판매 부수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달의 ‘양팡’의 별책부록이 좋다는 책방주인의 추천에 의해 연구자료로 삼았다.

8) 유형의 사용횟수는 한쪽에 한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쪽에 여러 유형이 있을 경우 가장 두드러진 이미지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만, 이 상업주의 역시 우리의 일상적 표상을 구성하는 강력한 요소이다. 단순하지만 위의 수치들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아동개념의 생산과 소비구조를 읽어낼 수 있다.

첫째로, 물건이나 기타 사진들을 제외한 인물 사진 중에서는 아동 한 명만의 사진이 절대 다수라는 점이다. 잡지가 유아전문지인 까닭에 아동이 주인공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는가는 아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는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 아동 한 명만의 사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아동들끼리의 상호작용의 사진에 비해 6배에 가깝다는 사실은 아동개념의 생산의 주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의 개념은 복수로서보다는 단수로서 생산, 소비된다는 사실이다.

아동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결과들이 실제의 일상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단수로서의 아동의 강조는 가족의 사진과 관련된 사진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동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은 한 장도 찾을 수가 없었다. 형제가 없는 단수로서의 아동이 실제 한국의 현실에서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아동양육잡지에서의 아동은 절대 다수가 외아들이거나 외동딸이다.

둘째로, 단수로서의 아동은 1:1의 양육구조로 이어진다. 즉 아동은 부모로부터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양육되는 존재로 생산된다.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사진이 80회인 반면에 아동과 아버지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사진은 14회에 불과하다.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획 기사를 제외하면 실제로 5회에 불과한 아버지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진은 아동양육과 관련되어 아버지의 실제 역할과 사회적 기대를 적나

라하게 드러내 준다.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사진들의 대부분은 그림(1)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상호작용의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들이다.

단수의 아동의 단수의 양육자, 즉 어머니의 강조는 아동과 부모 양쪽이 함께 나타난 사진이 4회(실제로는 2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동양육에 관해서서 가족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아동양육의 메커니즘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과 관해서서 '탁아소(daycare)'와 같은 공동양육에 관한 기사나 광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사회의 제도적 차원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아동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 하에 양육되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상호작용

요약하자면 사회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아동양육의 표상은 어머니와 아동의 1:1의 정서적 상호작용이다. 가족의 기능,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탁아소 등의 역할은 대학 교과서나 학술논문에서나 강조될 뿐 실제의 아동양육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 실제 광고의 문안의 내용들의

분석결과는 위의 이미지 분석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표1.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나타난 광고 문구

<p>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내용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눈빛으로, 느낌으로 (사진관 광고)</li> <li>- 아이가 편안해야 엄마도 편안합니다. (젓병 광고)</li> <li>- 똑똑한 아기는 똑똑한 엄마가 만듭니다. (분유 광고)</li> <li>- 엄마의 깊은 사랑만큼이나 세심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있습니다. (육아용품 광고)</li> <li>- 아기는 엄마의 품속에서 가장 포근하고 평화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섬세하게 만듭니다. (유아복 광고)</li> <li>- 갑자기 아이가 설사가 나면 엄마는 다급해집니다. 엄마 속도 불편하게 만드는 어린이 배탈, 설사 (아동용 약품 광고)</li> <li>- 내 아이만큼은 더 성장이 빠르고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게 엄마의 마음, 첫 우유부터 더 좋은 걸 먹여야겠죠? (우유 광고)</li> <li>- 엄마의 소망처럼 모유를 닮은 (두유 광고)</li> <li>- 엄마와 함께 간식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사랑과 행복을 배운대요 (요리책 광고)</li> <li>- 엄마의 최대 관심은 아이의 건강 (영양제 광고)</li> <li>- 사랑이 쪽쪽~, EQ가 쪽쪽~. 사랑스런 내 아기 음악으로 키우세요. 아기 갖기 전부터 똑똑한 아기를 키우는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준비하세요 (태교음악 광고)</li> <li>- 엄마의 손길에는 아기를 달래주고 곤히 잠들게 도와주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터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아기가 건강해집니다. (베비로션 광고)</li> <li>- 조금만 앞서가도 엄마는 뿌듯합니다. (분유 광고)</li> <li>- 아기는 태어날 때 1천억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뇌세포들은 아직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뇌세포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유아기의 두뇌 성장입니다. 이 때 엄마의 다양한 자극과 함께 충분한 영양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분유광고)</li> <li>- 아기가 열나면 불안하고 걱정되시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성어린 육아와 정기적인 소아과 진료가 필수적이지 아닐까요? (해열제 광고)</li> <li>- 엄마와 아기를 위한 우리 음악. 행복한 엄마 똑똑한 아이 그리고 나만의 클래식 (태교 음반광고)</li> <li>- 오직 내 아가를 위한 맞춤정보! 엄마가 된다는 것, 참 설레고 걱정되시죠? (인터넷 육아 사이트광고)</li> <li>- 현명한 엄마의 물 입맞춤: 우리아기 입에 쪽~ 웅진코웨이 맞춤정수기</li> </ul>
<p>아버지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이미지에 나타난 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빠사랑 캠페인: 아빠의 심장소리를 들려주세요, 아빠의 특별한 사랑은 아기의 미래를 책임집니다.</li> <li>- 최수종의 육아일기: 제 마음은 세상 모든 아빠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엄마 아빠에게 온 너! 복덩이 너를 얻고 나서 안되는 일이 없어요. XX는 아빠의 삶을 지켜주는 지킴이</li> <li>- 최수종의 아기를 위한 클래식: 엄마와 아기의 감정이입을 통한 태교음악. EQ발달을 위한 전문가 엄선의 클래식 명곡. 우리 아기 창의력과 감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전문가 엄선의 클래식 명곡으로 한장은 엄마의 태교음악, 또 한장은 아이의 유아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li> </ul>
<p>부모와 아동이 나타난 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중한 우리 아기의 추억, 영원히 지켜주세요. 언제나 사랑스런 그 모습을 영원히 남겨줄 수 있다면 부모에게도 또 후일 성장한 아기에게도 더없이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념품 광고)</li> </ul>



### 아동양육과 관련된 광고의 내용분석

위의 분석대상이 되는 잡지에 나타난 광고의 문안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과 아동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표1 참조). 아버지와 아동의 상호작용이나 아버지의 책임을 나타내는 내용은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또한 부모가 표현된 경우도 단 1회에 불과하며 그 내용은 부모의 추억을 위해 아동의 현재 발이나 손 모양을 석고로 찍어 만들어 놓으라는 내용이다. 즉 현재의 아동 양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표(1)의 광고문안에서 어머니(엄마)가 나타난 광고문안에 나타난 단어들을 살펴보면 아동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구체적 내용이 보다 잘 드러난다. 위의 광고문구에 나타난 단어들은 세 가지 차원, 즉 양육목표나 결과와 관련된 단어,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단어, 어머니의 양육책임이나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아동의 양육목표나 양육결과와 관련된 단어: 똑똑, 빠르고, 건강, EQ, 앞서가, 뇌세포 등
- 어머니의 양육책임이나 양육태도와 관련된 단어: 세심한, 배려, 다급, 불편, 손길, 뿌듯, 다양한 자극, 충분한, 불안, 걱정, 정성, 현명, 섬세 등
-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따뜻한, 사랑, 깊은, 포근, 편안, 평화로운 등

아동양육의 과제와 관련되어 어머니는 자신의

아동이 IQ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EQ와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도 남보다 빠르고 앞서 나갈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튼튼하게 자라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능뿐만 아니라 정서 또한 빠르고 앞서나가는 것과 관계된다는 사실이다. EQ라는 용어를 통해 아동의 정서적 성장을 지수(quotient)화 시켜 부모들을 위협하는 상업주의 전략에 발달심리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있는 모습은 자못 흥미롭다.

아동의 이러한 성장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어머니라면 항상 자신의 아동을 따뜻한 손길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며, 현명하고도 섬세하게 다양하고 충분한 자극을 줘야 하며, 아동이 잘못될 경우에 대해 항상 불안해야 하며 걱정해야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상호작용에서 항상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편안하고 포근하며 평화로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구체적 명령으로 이어진다.

광고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아이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관한 '정언적 명령(imperative judgement)'은 광고주들이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광고문안은 아동양육과 관련된 이상적 어머니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의 상업주의적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모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머니의 민감성(maternal sensitivity)'이란 개념과 위의 광고문안에서 요약되는 따뜻한 손길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며, 현명하고도 섬세하게 다양하고 충분한 자극을 줘야 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사이에는 아무런 내용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우연하게도 위 잡지는 기획기사로 애착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체

적 상황에서의 어머니의 행동지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과의 좋은 애착(안정애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행동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포인트 1: 아기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해 준다. '내가 울면 엄마가 어디선가 달려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낯선 상황에 놓여도 별로 불안해하지 않으며, 점차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포인트 2: 애착 신호를 보내면 원인을 해석한다.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를 파악해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놀아주고 재워주는 등의 보살핌을 주면, 아기는 자신을 돌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포인트 3: 일관성 있게 대한다. 엄마의 기분 따라 화내고 무시하고 거절하다가, 때로는 지나치게 뽀뽀하거나 껴안는 등 불규칙한 행동을 보이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늘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다.

포인트 4: 애정 표현을 다양하게 해준다. 아기들은 한 가지 방식으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간지럼 태우기, 무릎에 앉히기, 껴안기, 뽀뽀하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포인트 5: 신체적으로 잘 보살핀다. 아기의 상처를 돌봐주지 않거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홀로 남겨두는 등 신체적으로 소홀히 돌봐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enfant, 2001년 8월 호, 61쪽)

위의 안정애착을 위한 5가지 행동지침에 사용된 단어들은 앞서 제시된 광고의 문구에서 사용된 단어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 양육과 관련된 이상적 어머니의 행동양식은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다. 우선 이러한 아동의

신호에 민감한 어머니의 행동에 관한 전문가(심리학자)의 지침은 어머니와 아동간의 1:1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단수의 아동과 단수의 양육자, 즉 어머니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와 어머니가 한가하게 1:1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아기를 키워 본 엄마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특히 양육해야 할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이상일 경우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신호 이외에 기타 애착 신호에 민감할 수 있는 어머니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위의 행동지침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만 보는 어머니에게만 가능하다. 아침 출근길에 놀이방에 우는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는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아이가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나쁜 엄마일 따름이다. 이런 나쁜 엄마에게 탁아소 어린이 문제아 가능성 높다라는 심리학 연구결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는 협박에 가깝다.

어머니 품을 떠나 탁아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일수록 자라면서 공격적이고 반항적이 되는 등 행태 상의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에서 이뤄진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주에 30시간 이상을 탁아소에서 보낸 어린이는 4살-6살 때 17%가 문제행동을 보인 반면 10시간 이하인 어린이는 6%만이 문제행동을 드러냈다. 탁아소에서 보낸 시간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는 남녀 구분이나 어린이 가정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4월 20일)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탁아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탁아소의 교사들의 자질이나 노동여건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탁아소 교사들의 누적된 피로로 인해 아동들의 애착신호에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앞서 논의한 대로 문제를 이룬 내부에 국한시키는 방식이다. 위의 연구결과의 보다 정확한 이해는 이러한 연구들이 전제하고 있는 이론의 역사,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종류의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동의 1:1 상호작용의 이상화(理想化)의 기초가 되는 애착이론의 사회, 역사적 구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애착이론의 사회, 역사적 구성

오늘날 발달심리학 이론에서 응용적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받는 이론을 꼽으라면 삐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과 볼비(Bowlby)의 애착이론을 들 수 있다. 특히 볼비의 애착이론은 정서 발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만 아니라 한국의 발달심리학 논문들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이론이며 심리학내의 정서이론과 관련하여 경험적 자료를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초기 발달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한 심리학이론의 기원은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학이다. 정신분석학의 발달심리학적 적용이라 할 수 있는 위니콧(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Objektbeziehungstheorie)'과 같은 경우는 볼비의 애착이론과 같은 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볼비는 영국의 정신분석학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과 같은 정신분석학자들과 교분을 쌓으며 자신의 이론적 기반을 쌓아간다. 또한 안나 프로이드(Anna Freud)의 제자인 로버트슨(Robertson)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아동관찰법 등 당시 유행하던 정신분석학적 계통의 아동심리학 연구기법을 배워간다(Bretherton, 1995).

실제 임상에서의 정신분석이론의 적용에 관심을 가졌던 위니콧이나 클라인 등과는 달리, 볼비의 이론은 아동발달 초기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박탈되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임상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그가 1951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던 연구보고서 '어머니의 양육과 정신건강(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의 출판은 정신분석학으로부터 이론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이론, 즉 애착이론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가출한 아동들의 가족배경과 관련된 위의 연구보고서에서 볼비는 3세 이전에 어머니와 떨어져 자란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이후 그는 동물 행동학자인 로렌쯔(Lorenz)의 '각인(Praegung)'이론과 자신의 연구결과를 연관시켜 1958년 '아동과 어머니의 연결의 본질(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아동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웃기, 울기, 매달리기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해 어머니의 보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어머니 또한 본능적으로 이러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한다(위의 책, 34쪽).

볼비의 애착이론이 정신분석학에서 벗어나 실험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심리학의 한 분야로 진

입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에인스워쓰(Ainsworth)와의 공동작업이었다. '볼티모어 프로젝트(Baltimore-Project)'라 불리는 작업을 통해 에인스워쓰와 그녀의 동료들은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평가, 분류할 수 있는 행동목록을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행동목록을 통일하여 비교할 수 있는 실험실 관찰법을 개발해 냈다. 이 실험실 관찰법이 계속 정교화되어 오늘날 애착이론과 관계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관찰법으로 발전한다(Ainsworth, et al., 1978).

###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과 1:1상호작용의 이상화(理想化)

'낯선 상황' 관찰법은 아동이 실험실이라는 낯선 장소에서 어머니와 두번에 걸쳐 짧게(약 3분 내외) 헤어졌다가 만날 때의 아동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 아동의 행동을 정해진 목록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때 아동의 행동분류목록은 세 가지로 '안정 애착(secure attachment, B)', '불안정-회피 애착(insecure-avoidant attachment, A)', '불안정-저항 애착(insecure-resistant attachment, C)'으로 나뉘어진다. 후에 '불안정-혼돈 애착(insecure-disorganized attachment, D)'가 네 번째 항목으로 추가된다(Main & Solomon, 1986).

안정애착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어머니가 없을 동안 어머니를 찾으며 불안한 반응을 보이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면 크게 반기는 행동을 보인다.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되는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자신을 낯선 환경에 두고 사라져도 별 동요를 보이지 않거나 어머니가 들어와도 별 동요가 없다(불안정-회피 애착). 또한 어머니가 떠나면 불안해하지만 어머니가 접촉을 시도해도 별 반응이 없거나 짜증을 내며 밀어버리는 반응을 보인다(불안정-저항 애착). 불안정-혼돈 애착의 경우는 회피와 저항이 복합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의 분류 방식이다. 에인스워쓰와 그녀의 동료들이 처음으로 애착 분류체계를 개발할 당시에는 낯선 상황에서 불안정-회피애착의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을 독립적이며 자주적으로 해석하였다. 즉 독립적인 아동은 바람직한 아동양육의 결과이기에, 낯선 상황에서 어머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특성을 보이는 아이의 애착관계가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독립적인 아동들을 장기간 관찰한 결과, 아동의 행동유형이나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거나 가족내부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어머니가 없을 때 어머니를 찾고 불안해하는 아동들의 경우, 어머니와 아동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었다. 그 결과 독립적인 아동들은 불안정애착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어머니의 부재를 불안해하는 아동들은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었다(Bretherton, 1996, 42쪽).<sup>9)</sup>

비슷한 문제는 D유형, 즉 불안정-혼돈 애착유형이 분류되는 과정에서도 일어났다. 80년대에 메

9) 안정애착을 나타내는 영문기호가 B이고 불안정-회피애착의 기호가 A인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애초에 에인스워쓰와 그녀의 동료들은 불안정-회피 애착 유형의 아이들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A라는 영문기호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애착이론에 관한 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A유형을 '안정 애착'으로 대답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은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다.

인(Main) 등의 애착이론가들이 낯선 상황 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서발달 측정의 기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확대받은 아동들의 상당수가 안정 애착으로 평가받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 아동들은 평가자나 평가상황에 따라서 불안정-회피 애착, 불안정-저항 애착으로 평가받은 혼동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 이외에도 기존의 세 가지 애착 유형으로 범주화시킬 수 없는 아동들의 경우도 13%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주장되었다(Main & Weston, 1981).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을 문자 그대로 혼돈스런 아동들, 즉 불안정-혼돈 애착으로 분류하게 된다(Main, 1995).

사실 애착이론이 정서관련 발달심리학 이론에서 기존의 정신분석학 이론들을 제치고 각광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낯선 상황이라는 실험실 측정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애착유형 분류방식과 관계된 일련의 상황은 애착유형이 실증주의자들이 믿듯이 실험실 내적 상황, 즉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경험 과학적 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A범주의 아동들, 즉 처음에는 긍정적인 의미(독립적)로 분류된 아동들이 실제 가정환경을 보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식의 해석방법은 실험적 관찰과는 관계없는 사회의 양육 이데올로기의 일방적인 반영일 따름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독립적인 행동방식은 문제가 있어야만 하고 안정적이고 부모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의존적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가치 중립적인 실험실 결과의 해석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 양육 이데올로기와 소위 말하는 객관적 관찰 결과와의 착종은 불안정-혼돈 애착 유형의 분류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결국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실 결과는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해석체계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다.

약 3분에 걸쳐 실험실에서 관찰되는 아동의 행동을 가지고 그 아동이 수십 개월에 걸쳐 어머니와 쌓아온 정서적 관계를 평가하겠다는 시도는 어쩌면 무모한 시도일 수 있다. 더욱이 아동을 어머니로부터 고립시켜 그야말로 '낯선 상황'(실험자들의 관점에서는 낯선 상황이었지만 피험자인 아동들에게는 고통스런 상황일 수 있다)에 밀어넣는 윤리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그 관찰결과를 해석하는 틀, 즉 애착유형분류의 기준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비판의 부재는 어쩌면 의도적일 수도 있다. 안정 애착과 불안정-회피 애착의 해석이 뒤바뀌고 불안정-혼돈 애착이 추가로 도입되는 과정은 1:1 양육방식, 즉 방해받지 않는 한 명의 양육자, 즉 어머니와 한 아동의 상호작용 방식을 중요시하는 서구사회의 중산층의 양육방식이 어떻게 이상적인 양육방식의 전형이 되는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1:1 양육방식의 이상화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더불어 탁아소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어머니와 떨어져 낯선 상황인 탁아소에 맡겨지는 것이 익숙한 일하는 여성의 아동은 위의 실험에서 대부분 불안정-회피 애착으로 분류될 것이다. 어머니와의 1:1 상황이 익숙치 않은 형제가 많은 아동의 경우도 안정 애착으로 분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정 애착의 기반이 되는 '어머니의 민감성

(maternal sensitivity)'이란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수, 양육환경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불안정 애착'이 없는 나라는 좋은 나라?

애착유형의 분포와 관련된 비교문화연구의 결과들은 안정 대 불안정이라는 가치평가가 포함된 이분법적 분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정 애착유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로써 탁아소가 보편화된 이스라엘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애착 유형의 분포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는 안정 애착이 60-70%에 이르는 반면, 독일의 경우(Grossmann, et al., 1981) 50% 이상의 어린이들이 불안정 애착 유형, 그 중에서도 불안정-회피 애착 유형이 압도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인 키부츠의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Sagi, et al., 1985)에서는 불안정-저항 애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의 연구(Miyake, et al., 1985)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불안정-저항 애착이 많이 나타난 반면에 한국의 경우(박용임, 1995; 홍계옥 & 정옥분, 1995) 안정 애착유형이 월등하고, 이어서 불안정-회피 애착이 20%가량을 나타내는 미국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교문화연구의 결과를 통해 문화와 아동양육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시도되었다. 즉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의 분포의 차이는 문화적 양육체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아주 어릴 때부터 독립성을 강조하는 독일문화에서 자라난 아동은 어머니와 분리된 낯선 상황에 익숙

하기 때문에 불안정-회피 애착의 경우가 다수인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Grossmann, et al., 1985).

그로스만(Grossmann)과 같은 학자는 같은 독일 내에서도 불안정-저항 애착이 남부보다 북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 역시 문화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즉 독립, 근면, 자주적인 양육방식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다수인 북부독일에서는 카톨릭이 다수인 남부에 비해 불안정-저항 애착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pangler & Grossmann, 1995).

일부에서는 애착유형의 분류체계를 언어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라든가, 아동이나 어머니의 행동의 코딩방법에 있어서 정교하지 못한 애착유형분류방법, 평가자의 훈련부족 등의 방법론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민감하고 다정한 태도를 코딩할 경우, 어머니의 구체적인 행동을 민감하고 다정하다라고 분류하는 코딩의 원칙이 정교하지 않기에 생긴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방법론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정한 행동의 문화적 표상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정함을 나타내는 신체적 기호가 문화적으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 결국 방법론상의 문제는 문화적 차이를 어떠한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하는 이론적인 문제인 것이다.

위와 같은 비교문화연구의 결과들은 애착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안정 대 불안정'이라는 이분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애착의 유형을 해석할 때, 특정한 사회계층의 양육 이데올로기가 전제된 긍정적인 애착과 부정적인 애착의 이분법을 선부르게 일반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의 아

동양육잡지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정 애착을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양육결과로 전제하며 이상적인 아동양육이란 어떠한가 한다고 구체적 행동까지 규정하는 애착이론의 상업주의적 일반화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 아주 익숙한 단어들 - 아동, 어머니 그리고 가족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은 문화와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더 나아가 아동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에 따라 각각의 아동양육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애착이론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과 같은 이상적 양육방식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애착이론에 근거한 양육이론과 팽팽하게 맞서있다. 예를 들어 낯선 상황에서의 아동의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타고난 기질(temperament)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애착이론이 측정하는 것은 애착유형이 아니라 아동의 기질의 유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Kagan, 1984).

여기서 기질개설이 옳으나 애착이론이 옳으나를 평가하는 것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논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애착이론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앞의 아동양육잡지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적 양육방식의 보편화와 일반화의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어머니의 민감성은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

볼비가 애착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하던 시기는 2차대전이 끝난 직후이다. 전쟁에 나간 남편들을 대신하여 사회 곳곳에서 남성들의 역할을 대신했던 여성들은 아동양육을 사회기관에 의지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아동들은 가족을 박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박탈의 결과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결과를 연구했던 볼비는 ‘좋은 기관(고아원)보다는 나쁜 가족이 낫다(a bad home is better than a good institution.)’는 당시의 격언을 자신의 애착이론의 토대로 삼게 된다. 이 때 가족은 어머니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어머니가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반대로 가족이 없는 어머니, 즉 미혼모는 나쁜 가족에도 속하지 못한다. 볼비는 미혼모의 아동들은 다른 가족으로 입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볼비에게 가족이란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며 아동이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가 존재하는 곳을 의미한다.

볼비에게는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어머니-가족의 연결은 ‘가족을 위한 여성’과 ‘일하는 여성’의 이분법으로 이어진다. 즉 직장세계와 아동양육을 위한 가족을 위한 분리는 아동을 탁아소에 맡기는 나쁜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비난을 동반한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탁아소에 맡겨지는 아동은 단순히 어머니로부터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여타 가족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볼비의 이론에서는 탁아소나 고아원 등의 아동보호소의 문제를 ‘모성 박탈(maternal deprivation)’의 측

면으로만 연결짓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모성박탈의 경험이 아동의 발달과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볼비에게 있어 여성의 아동양육과 사회활동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아동양육은 생물학적인 기원을 갖는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과도 같은 것이다(Burman, 1994, 85쪽). 본능으로서의 모성이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비는 '어머니의 민감성(maternal sensitivity)'이란 개념으로 요약한다. 이는 아동의 배고픔이나 불편함, 지루함 등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무런 학습 없이 새끼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다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기를 다루어야 하는지 당연히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원초적 본능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볼비의 가설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거나 아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여성을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하지만 모성에 대한 본능가설은 오늘날 더 이상 설득력 있는 이론이 아니다. 설사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본능가설을 받아들여더라도, 본능적인 어머니의 민감성은 어머니가 아무런 방해요인 없이 전적으로 아동에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만약 한국전쟁 당시 어머니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6, 7명씩 되는 자녀들을 데리고 피난 다닐 때 본능인 '어머니의 민감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또한 당시 영, 유아기를 겪었던 한국의 50대들은 모두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성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까?

### 가족에서는 의존적인 아동이 사회에서는 독립적?

어머니의 민감성이 아동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애착이론의 기본 전제는 아동의 정서의 조절능력 발달에 관한 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에서 경험되는 정서의 조절 과정이 차후의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애착(attachment)이란 용어자체가 상호작용적인 개념이다. 정서의 상호작용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애착이론은 정서와 관련된 심리학이론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정서이론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심리학의 정서이론에서는 정서가 '인간내적 정서(intrapsychic emotion)'의 차원으로만 설명됨으로써 정서의 상호작용적 특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 이는 인간의 정서를 동물정서의 진화된 형태로 보는 다윈(Darwin)의 정서이론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Kim, 2001).

사실 정서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간과한다면 인간의 정서란 동물의 그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정서는 상호작용적 특성과 사회구성적 특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해서 정서에 관한 '관계적 정서(interpsychic emotion)', 즉 정서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애착이론은 여타 정서이론과 구별되는 장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Stern, 1993 참조).

하지만 애착이론의 전개과정에서 애착의 상호작용적 측면이 상실되어 버리고 정서의 개인주의적 접근만이 남아버렸다. 즉 애착의 상호작용적 차원이 어머니의 민감성이나 낮은 상황과 같은 실험적 조작을 통한 아동의 애착유형 측정의 차



원으로 환원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에서 정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교환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아동이 정서를 어떻게 '조절(regulation)'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정서의 잘못된 조절방식과 불안정한 애착유형은 동일시된다. 마지막으로 애착이론 전문가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아동의 불안정 애착은 결국 어머니의 잘못된 양육태도의 결과라는 원인규명일 뿐이다.

애착이론이 보다 폭 넓은 이론전개의 가능성을 제쳐 두고 정서를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시킨 가장 큰 이유는 '의존 대 독립'이라는 이분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의존은 이후 아동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믿음은 지극히 서구 백인사회의 문화적 특징이다(Burman, 1994).<sup>10)</sup> 집에서는 의존적일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의존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서구문화의 전통은 인간이란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개인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고립된 존재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체적이어야 하며 독립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여성-의존적', '사회-남성-독립적'이라는 이분법의 사회적 표상은 애착이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 결론을 대신하여: 21세기의 가족과 아동양육

애착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가족, 즉 아동-어머니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과 공간이 부여되는 가족이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하나, 또는 연령의 차이가 많이 나는 둘 정도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가족은 서구사회에서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리잡은 가족 형태이다. 아울러 이러한 핵가족은 미래에는 더 이상 전형적인 가족 형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핵가족을 보편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가족에서나 가능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본능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애착이론의 한계는 명확하다.

트랜스 젠더, 동성연애, 인간복제의 문제를 무리하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21세기의 가족의 형태는 20세기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서구사회에서조차도 여성이 집에서 아동양육에만 몰두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가족은 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전체 아동의 1/3 이상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또한 정식으로 결혼한 가정 전체의 1/3 이상이 이혼하며, 70% 이상의 여성이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위의 책, 68쪽).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양상이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만약 정상적인 가족이 사회의 대다수의 가족 형태를 뜻하는 것이라면 핵가족은 더 이상 정상적일 수 없다. 도덕적 당위로서의 핵가족을 전제

10) 독립성이라든가 주체성이 강조되는 인간발달이론이 서구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주장일 뿐 보편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일본의 '아마에(Amae)'라는 정서와 관련되어 이미 80년대부터 논의되어온 주제이다. 아마에란 웅석부림과 같은 정서적 의존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일본인들에게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상호작용의 규칙이 된다(Minami, 1994).

하는 애착이론은 더 이상 당위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이론은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애착이론은 20세기 후반의 서구사회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구성되었고 그 곳에서 응용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애착이론을 가능케 했던 모든 맥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좋은 애착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아동 양육잡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안정 애착을 위해 본능적인 어머니의 민감성을 발휘할 것을 권하는 심리학자의 말을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엄마는 얼마나 될까? 안정된 형태의 핵가족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1:1의 따뜻한 양육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아침마다 아이를 '놀이방'이나 친정부 모에게 맡기고 일하러 나서는 어머니들에게 애착이론은 다음과 같은 협박에 가까운 진단 이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당신의 자녀는 불안정-회피 애착이나 장애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애착이론이 20세기 후반의 서구의 안정적 핵가족을 일반화시킨 이론이라면 오늘날 한국에서의 아동양육이론의 구성은 한국의 가정과 문화적 양육방식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동육아'와 같은 대안적인 아동양육형태에 관한 심리학적 논의, 한국의 아동양육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 등과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아동양육기관, 즉 놀이방, 유치원 교사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여성들의 '어머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이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면 애착이론의 효과적인 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머니의 민감성' 때문이기보다는 '낮은 급여'가 더 큰 원인이다. 초등학교 교사나 학습지 교사의 대부분이 여자인 까닭도 남성들이 일하기엔 낮은 보수 때문이다.<sup>11)</sup> 이러한 사회학적 조건에 대한 이해 없이 공동육아에 관한 심리학이론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애착이론은 한국의 발달심리학에서 널리 인용되는 이론이다. 또한 '낮선 상황'실험이나 성인의 애착유형을 읽어내려는 'adult attachment interview'와 같은 방법 또한 심리학자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애착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남용되는 애착이론은 한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할 뿐이다.

심리학에서 연구되는 아동은 심리학자들의 구성물이다. 또한 이 아동은 권력관계, 정책적 관심과 가치투자의 결합체이다(Singer, 1993, 430쪽). 오늘날 공동육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부재나 탁아제도 등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애착이론 또한 '아동-어머니-가족'의 연결구조를 정당화시키는 사회, 문화적 구조에서 정확히 이해

11) 초등학교 교사들 중 여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에 대해 아동의 성역할 학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가끔 있다. 아동들이 학교에서 과연 어떠한 성역할과 관련된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황당한 논란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은 문제가 되면서 대학교수의 대부분이 남자인 것은 왜 문젯거리가 안 되는가 라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준다. 즉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의 사회적 인식이나 실제 급여수준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여성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애착이론을 포함한 아동양육과 관련된 이론은 '해체(de-construction)'되어야 하며 문화,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re-construction)'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정운 (2000). 붕어빵과 아동. 문화와 사람. 1(2). 223-246.
- 김정운, 한성열 (1999).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일반). 17(1). 97-114.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 변인. 아동학회지. 16(1), 113-131.
- 최상진 (1997). 당사자 심리학과 제삼자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자료집: 동양 심리학의 모색 (pp. 131-143).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서울.
- 홍계옥, 정옥분 (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 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99-112.
- Ainsworth, M.D.S., Blehar, M.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ris, P. (1965).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ew York: Vintage.
- Bretherton, I. (1995). Die Geschichte der Bindungstheorie. In G. Spangler & P. Zimmermann (eds.), *Die Bindungstheorie: Grundlagen, Forschung und Anwendung*(pp. 27-49). Stuttgart: Klett-Cotta.
- Burman, E. (1994). *Deconstruc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Clough, P. (1994). *Feminist Thought*. Blackwell: Oxford.
- Grossmann, K., Grossmann, K.E., Spangler, G., Suess, G. & Unzner, L. (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d. 50, pp. 233-275).
- Grossmann, K.E., Grossmann, K., Huber, F. & Wartner, U. (1981). German children's behavior towards their mothers at 12 months and their fathers at 18 months in Ainsworth's Strange Sit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 157-181.
- Kagan, J. (1984). *The nature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Kim, C.W. (1997). Can we not be free from nationalistic ideology? *Culture & Psychology*, 3(4), 472-484.
- Kim, C.W. (2001). Relationship between Inter-subjective Experiences of Emotion and Cultural Experiences: About the Conceptual Location of Cheong in Psy-

- chology of Emotion. *Paper presented at the 4<sup>th</sup> annual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in Melbourne*, July, 10th-13th, 2001.
- Main, M. (1995). Disorganisation im Bindungsverhalten. In G. Spangler & P. Zimmermann (eds.), *Die Bindungstheorie: Grundlagen, Forschung und Anwendung* (pp. 120-139). Stuttgart: Klett-Cotta.
- Main, M. & Solomon, J. (1986). Discovery of an insecure 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Procedures,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havior. In T.B. Brazelton & M. Yogman (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 (pp. 95-124). Norwood, NJ: Ablex.
- Main, M. & Weston, D.R. (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to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Minami, H. (1994/1999). *Nihonjin Ron* (일본인론), (이관기역, 한림신서).
- Miyake, K., Chen, S.J. & Campos, J. (1985). Infant temperament, mother's mode of interaction, and attachment in Japan: An interim repor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d. 50, pp. 276-297).
- Sagi, A., Lamb, M.E., Lewkowicz, K.S., Shoham, R., Dvir, R. & Estes, D. (1985). Security of infant-mother, -father, and metapelet attachment among kibbutz-reared Israeli childre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d. 50, pp. 257-275).
- Singer, E. (1993). Shared Care for Children. *Theory and Psychology*, 3(4), 429-449.
- Spangler, G. & Grossmann, K. (1995). Zwanzig Jahre Bindungsforschung in Bielefeld und Regensburg. In G. Spangler & P. Zimmermann (eds.), *Die Bindungstheorie: Grundlagen, Forschung und Anwendung*(pp. 50-66). Stuttgart: Klett-Cotta.
- Stern, D. (1993). The role of feelings for an interpersonal self. In U. Neisser (ed.), *The perceived self: Ecological and intersocial sources of self-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기타 자료  
아동양육 전문월간지 양광 (enfant), 2001년 8월호  
한겨레 신문, 4월 20일자 기사 탁아소 어린이 문  
제아 가능성 커

##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hild

Chung-Woon Kim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The concept of 'child' or 'childhood' is not a natural one, but a product of social construction. The psychological approach in which 'childhood' is regarded as natural and universal (especially in the theorie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roots ideological assumptions. In this regard, the sensible analysis of the concept 'maternal sensitivity' in the attachment theory shows how the two concepts - motherhood and childhood - are interrelated, or rather, how the latter is produced by the former in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In the first part of this research, a monthly magazine of preschool education was analysed in order to show how the images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he contents that is related with the way of bringing up children would construct the so-called nature of motherhood. In addition, the everyday consumption of the psychological concept such as 'maternal sensitivity' and its hidden ideological functions were discussed. In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the socio-cultural production of the attachment theory was discussed. That is, the attachment theory itself is not a universal theory, but a result of concrete social demands in Europe and North-America.

The adoption of the attachment theory to other socio-cultural context without any careful consideration has some critical results,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system such as 'day care'. For the reason, the psychological theories about childhood, motherhood, family, and the child education should be re-discussed in the concrete socio-cultural context, not in the universal context, because the universal context means merely a vacuum.